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운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최

—9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주관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로 오는 9월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5시 20분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이번 학기에는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이종운 목사의 성경적 교회 성장원리가 매주 강의될 것이고 열분의 국내외 석학들과 경건한 목회자들이 교회사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아홉분의 경건과 설교를 집중적으로 연구발표함으로 현대 교회의 목회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특히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인 미국의 윌튼대학교 총장인 제이스바사가 강사로 특별 초청된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장인 로간박사를 비롯하여 세계적 신학자이던 단박사(테네시대학교) 그나나칸박사(ATA총무)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들을 강사로 초청한바 있다.

4학기를 수료한 분들에게는 본 연구원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졸업한 분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매 학기 강의는 새롭게 준비되고 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이종운목사, 김형석교수특강—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는 오는 8월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강원도 간성의 알프스 리조트에서 제52회 총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전국교회의 남 선교회(51개 노회 산하 53개 연합회)회원 약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대회 특강 강사는 이종운목사와 김형석교수(연세대)로 알려졌다.

등록비는 45,000원으로 우리교회 남 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대회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8일(주일)까지 등록비와 함께 우리교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과야의
소리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가족과 온성도와 함께 나누어
은혜의 역사를 이루자.



은혜의 단비를 뿌린 여름 수련회

“안왔으면 크게 후회할뻔 했습
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수련회에 참여한 P성도의 말이
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올 여
름 휴가가 없기 때문에 못가게 되
는가 보다 했는데 뜻밖에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해서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모두들 넉넉한 환경에서 시작한
발걸음이 아니기에 성도들의 열심
은 대단하였다. 기왕에 왔으니 많
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
양하고 사랑도 듬뿍하여 집에 돌아
가겠다고 결심이 대단했다.

천여명이나 되는 성도의 대이
동,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고, 어떤 교회도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새벽기도회와 저녁 부
흥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김
학만 목사는 말씀하신다.

잠실운동장 앞을 출발하면서
버스안에서 드린 새벽기도로부터
도착한 첫날의 개회예배 시간마
다 이어지는 집회, 특강, 각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은 탁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단
비로 흠뻑 젖기에 충분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좋았지만
수련회의 절정은 캠프 화이어였
다고 많은 성도들이 말한다. 촛불
을 들고 넓은 운동장에 둘러앉아
타오르는 불꽃 앞에 자신을 번제
하며 하나님께 드린 결단의 기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후대하
셨다.

“감사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작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번 수련회 동안 기도할 능력을 달
라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
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캠프
화이어 할때 뜨거운 눈물이 쏟아
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렸다” 굳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H집사
의 간증이다.

지독히도 더웠던 작년 수련회
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안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던 이들도 돌아오
는 길에서는 내년을 기약하였다.

차편을 제공한 회사, 구석구석
에서 봉사하신 준비위원들, 찬양
대원, 교사 그리고 자랑스런 대학
부, 청년부 회원들에게 주님의 이
름으로 감사를 드릴 뿐이며 주님
께서 이 사랑의 빛을 다 갚으실
줄로 믿는다.

헤어지기가 아쉬워 또다시 모
인 대학부 학생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
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는 없을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
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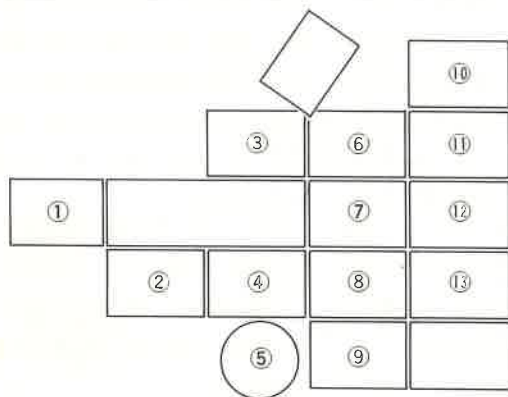
머리카락하나 상하지 않고 무
사히 도착한 이들의 찬송소리가
잠실벌을 흔들어 밤하늘에 메아
리친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전가족 여름수련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던 순간들



- ① 진지하네요. 삼위일체 점화봉
- ② 준비, 시 ~
- ③ 여기 다 모였습니다.
- ④ 마침내 성공.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 ⑤ 나 예쁘지요. (장년부 장기자랑)
- ⑥ 잘해봅시다. 아 ~ (찬양대회 연습중)
- ⑦ 이 사람을 보라. (성극)
- ⑧ 주여! 은혜, 은혜, 은혜를 허락하소서.
- ⑨ 하나, 둘, 셋 ... (새벽기도후 아침체조)
- ⑩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 ⑪ 모세 할아버지는요 ...
- ⑫ 젊은 그리스도인이여 주안에서 비전을 ... (중·고등부 부흥회)
- ⑬ 초등부 여러분, 오게 뭐지요.





감사가 넘친 시간들

최영순(1교구)

3년된 술이와 17개월 된 설이를 데리고 삼척까지 가려고 결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우기 남편은 아직 신앙생활을 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자꾸만 마음이 끌려 교회에서 수련회에 대한 광고가 나온 이후로 새벽마다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구역에서도 많이 도와 주셨다.

수련회 오기전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한동안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우울했고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어떻게 갈까 싶어 안간간히도 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과 마음들이 사탄의 역사였던 것을 부흥회 중에 깨달았다. 사탄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일을 그렇게 방해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난꾸러기 술이와 설이도 탁아부 교사들이 서로 맡아 주시려고 애쓰시고 나 역시 시간마다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구역의 이영숙 권사님과 다락방장님, 그리고 화미 엄마도 내게는 언제나 큰 힘이였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 것이다. 비록 능숙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시리라라는 확신이 있다.

지난 5월에 등록하여 아직은 많은 성도들과 친하지 못하지만 모두 한 가족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다.

수련회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엄마 하늘이 맑았어요

유숙인 권찰

밤잠을 설치며 김밥을 준비하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다소 심란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늦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탄 분들과 서로를 소개하고 찬양하며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은 듯했다.

나는 그저 몸만 갔을 뿐인데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는지 숙소며 샤워실이며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언제나 우리의 뒤에는 수고의 땀과 희생이 있다는 새삼스런 생각에 감사만 생겼다.

모든 집회가 다 은혜로왔지만 특히 김용진 집사의 특강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나와 가정과 고작해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나였지만 이제는 세계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해야 할 일을 능동적인 자세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하고 싶다면 맑은 날씨를 주시라고 기도하던 아들 녀석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다. "엄마 하늘이 맑았어요."

큰 은혜 짧은 소감

믿은지 얼마 안되는 병아리 신자이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참여한 수련회에서 이제는 나도 믿음의 반열에 들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남영미(1교구)-

성경에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말았다. 예수님의 고난이 또 다른 것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관규집사(7교구)-

집회때마다 안내를 맡아서 봉사했다. 교회에서보다 더욱 질서를 잘 지켜주신 성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최승옥집사(9교구)-

못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타반으로 묶어 수련회로 인도하셨다. 찬양을 인도할 때 나 자신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

-이규임집사(3교구)-

부흥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같은 여전도회원들과 둘러앉아 밤늦도록 릴레이 기도를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현주집사(11교구)-

-성기원(대학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실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영수(초등부 교사)-

부흥회 시간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을 수 있었다.

-정인숙(3교구)-

첫 시간부터 눈물의 연속이었다.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다.

-김초일(1교구)-

이번 수련회 예년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이었다. 이종윤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은 참으로 유익했고, 중고등부에 맞는 부흥회 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오화영(고1)-

수련회를 마치며

최강현(초등부)

지난 26일 버스를 타고 삼척에 도착해 우리는 들뜬 마음이었다. 나는 지난해에 온적이 있어서 친근감이 든다. 한가지 다른 점은 작년에는 내가 유년부였지만 지금은 초등부라는 점이었다.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해서 나는 불만이 많았다. 시간지키기가 힘들고 귀찮았지만 차츰 어느정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바닷가에서의 수영도 나를 기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찬양과 율동, 게임과 여러가지 일들... 그 중에서 캠프파이어는 잊을 수 없다. 밤 중에 촛불을 켜 어둠을 밝히는 일...

3박4일간의 짧은 일정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며 이번 수련회 일정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3박4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말씀, 기도, 교제로 지속되도록
2.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복음사명을 위한 새예배당을 주소서.
3.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